



■ 영상택배 시즌2 - 독립영화 '기억 저편'



이번 호 뉴스레터와 함께 전해드리는 영상택배는 지난 6월 광주독립영화축제 개막작으로 상영된 영화 "기억 저편"입니다. 이 작품은 광주시 북구 중흥2동에서 현재 진행중인 재개발 상황을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배우로 출연해 화제가 된 작품인데 주연 배우가 우리 연구원 광주지부 구순식 회원입니다. 연구원 행사 때마다 즐거움을 선사하던 구순식 회원의 모습을 영상으로나마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동화의 세계 순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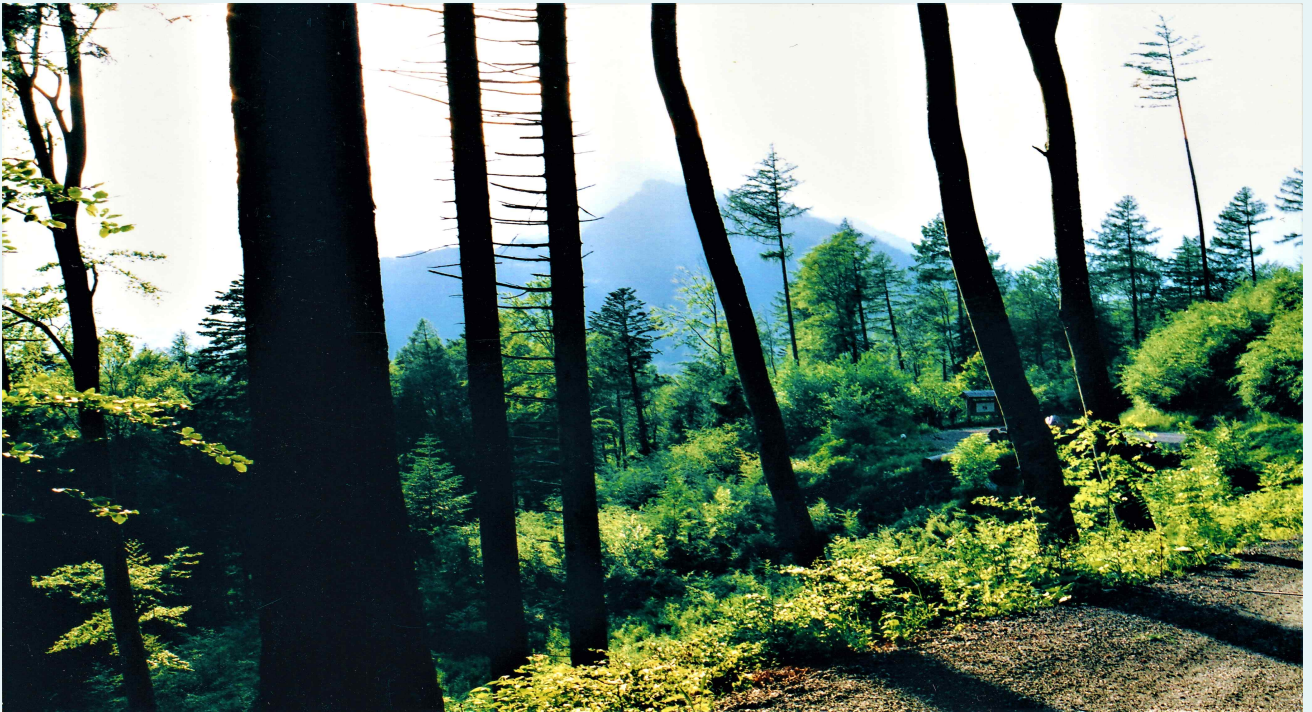
- 하이디 마을 마이엔펠트 -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전임 연구원)



하이디 마을 마이엔펠트에서 본 산 풍경, 산 중턱이 할아버지가 사는 집이 있다.

「스위스 알프스의 오래된 작은 마을 마이엔펠트. 편안한 곳에 자리 잡은 이 마이엔펠트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어귀까지, 나무가 우거진 푸른 밭 사이로 오솔길이 꼬불꼬불 나 있었다. 산은 마이엔펠트 쪽에서 당당하고 근엄한 모습으로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솔길이 오르막길로 바뀌자마자 키 작고 억센 잡풀이 무성한 풀밭이 향긋한 냄새로 찾아오는 사람을 맞았다. 오솔길은 가파른 오르막길로 곧장 알프스 고원으로 이어졌다.」



위의 글은 요한나 슈피리의 『하이드』 첫 시작의 글이다. 하이드는 동화 속의 주인공이지 실제 인물이 아니고 마을도 가상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책에서 소개하는 마을의 묘사는 매우 사실적이다. 이유인즉슨, 이 책의 작가인 요한나 슈피리는 어릴 적에 이곳에서 지냈었고 따라서 자신의 어릴 적 추억을 되살리며 하이드를 집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이 그 소설을 참고하여 동화의 마을로 조성해놓은 것이다.

따라서 마을 곳곳에 동화의 배경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찾는 이들로 하여금 동화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 하이드는 부모를 여의고 다섯 살 때 이모에게 끌리다시피 가서 알프스 고원에 사는 할아버지에게 맡겨졌다. 할아버지는 완고할 뿐만 아니라 무섭기까지하여 동네 사람들과 교류도 없이 산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다 하이드가 맡겨진 것이다. '무서운 할아버지에게 혼 날 텐데, 아이구 가여운 것!' 하는 마을 사람들의 염려 속에 고원으로 가는 장면으로 하이드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우리도 동화 속으로 들어가 보자.

「노인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아이가 내민 손을 잠깐 잡아 주었다. 짙은 눈썹 밑 부리부리한 눈을 뚫어질 듯 아이를 오래오래 쳐다보았다. 하이드도 이에 질세라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마주 바라보았다. 기다란 수염이며 덩불처럼 보이는 짙은 눈썹이며, 할아버지가 어찌나 이상해 보였던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사는 알프스 고원에 올라가 보니 소설에 나오는 할아버지와 같은 모습이다.

이모는 하이디를 돌보느라 4년간 고생하였으니 이제는 할아버지가 손주를 맡아 주셔야한다는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다.

-중략- 「이모 데테가 사라진 후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파이프 담배만 뽕뽕 피우며 땅바닥만 뚫어져라 내려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이디는 아랑곳하지 않고 처음 보는 주변 경치를 돌아보느라 신이 났다. 오두막 옆의 염소우리를 들여다본 다음 주변을 탐색하듯 계속하여 집 뒤를 돌아 전나무 쪽으로 갔다. 그 때 바람이 가지를 흔들며 세차게 불자 꼭대기에서飒飒 소리가 났다. 하이디는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하이디는 숲의 나무들에서 스치는 바람 소리가 신기했고 듣기에 좋았다.飒飒 바람 소리는 하이디에게 고향의 소리가 된다. 하이디가 후일 이모에 의해 도시로 갔는데, 이 숲 전나무의 바람소리가 그리워 몽유병에 걸리기도 했다.

아무튼 하이디는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하는 할아버지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 바람이 잦아들자 아이는 오두막의 다른 쪽 모퉁이를 빙 돌아 다시 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왔고 할아버지에게 이것저것 물어댔다. 할아버지는 자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손녀가 귀여워지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자 할아버지는 귀여운 손녀에게 오두막 2층 다락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작가 슈피리는 하이디 이야기를 이어 간다.

「할아버지는 사다리를 올라가 하이디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밖에는 달이 휘영청 밝게 떠 있었다. 가끔 구름이 끼어 깜깜할 때도 있지만 할아버지가 올라갔을 때 마침 창문으로 달빛이 환하게 새어 들어와 하이디의 침대를 비추고 있었다. 하이디의 뺨은 사과처럼 빨그레했고 편안하고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즐거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자고 있는 손녀를 오래오래 지켜보다가 내려갔다.」



오두막 다락에 있는 하이디의 침대



하이디의 침대에서 내다 본 풍경

■ 천년 암자에 오르다

사모곡이 들려오는 <무척산 모은암> 두 번째 이야기 “김수로왕과 수릉”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김수로왕을 모신 수릉 | 가야왕국과 김해 김씨의 시조 수로왕이 오늘날까지 모셔지고 있다.

김수로왕에 관해서는『삼국유사』의 기록이 세밀하다. 여섯으로 나뉘어 존재했던 가야국의 건국신화이기도 하다.

천지가 개벽한 후, 이 지방에는 아직 나라 이름도 없었다. 또 왕과 신하라는 칭호도 없었다. 이때 아도간我刀干, 여도간汝刀干, 피도간彼刀干, 오도간五刀干, 유수간留水干, 유천간留天干, 신천간神天干, 오천간五天干, 신귀간神鬼干的 구간九干이 있었다. 이 수장首長들은 백성을 통솔하고 살았는데, 대체로 100호에 75,000명이었다. 이때 사람들은 산야에 도읍하였으니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농사를 지어 먹었다. 후한後漢의 광무제光武帝건무建武18년 임인(서기42) 3월 상사일上巳日이다. 그들이 사는 곳 북쪽의 구지봉龜旨峰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수상한 소리가 들렸다. 구지봉은 산봉우리의 이름인데, 거북이가 엮드린 형상과 같아 구지봉이라고 불렀다. 구간들과 마을 사람들 200~300명이 이곳에 모였는데, 사람 소리 같았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소리만 들려왔다.

“여기에 사람이 있는가?”

구간들이 대답했다.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또 말하였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대답하였다.

“여기는 구지봉입니다.”

다시 말하였다.

“하늘이 내게 명령하셨으니, ‘이곳에 나라를 새로 세워 임금이 되라!’하셨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내려왔노라. 너희들은 이 산 꼭대기의 흙을 파면서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먹겠다.’라고 노래하며 춤을 추어라. 그러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대왕을 맞이해 매우 기뻐 춤을 추게 될 것이다.”

구간들은 그 말에 따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두 기뻐하며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얼마 후 하늘을 우러르자 자주색 줄이 하늘로 부터 드리워져 땅에 닿았다. 줄 끝을 찾아보니 붉은 보자기에 금합이 있었다. 열어 보니 황금빛이 나는 알 여섯 개가 해처럼 둥글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기뻐하며 함께 수없이 절을 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보자기에 싸 가지고 아도간我刀干的 집으로 갔다. 보자기를 탁상榻床위에 놓고서 무리들은 모두 흠뻑 젖었다.

12시간이 지난 다음 날 아침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여 금합을 열어 보니 여섯 개의 알이 모두 변하여 어린이가 되었다. 아이들의 용모가 매우 깨끗하였다. 곧바로 평상平床에 앉히고 사람들은 모두 절하고 하례하며 극진히 공경했다. 아이들은 날로 자라, 열 며칠이 지나자 키가 9척으로 은殷나라의 천을天乙과 같았다.

얼굴은 용안으로 한漢나라의 고조와 같았다. 눈썹이 여덟 색깔로 빛남은 도당陶唐의 요堯임금 같았고 검은 눈동자가 한 눈에 두 개씩 박힌 것은 우虞나라 순舜임금 같았다. 그달 보름날에 아이는 왕위에 올랐다.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하여 이름을 ‘수로’ 혹은 ‘수릉首陵’이라고 했다. 나라를 대가락大駕洛 혹은 가야국伽倻國이라고 일컬으니 곧 육 가야六伽倻의 하나다. 나머지 다섯 아이들은 각각 떠나 오 가야五伽倻의 임금이 되었다.

수로왕이 김[金]씨라는 성을 지니게 된 것은 금[金]빛 알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난생설화卵生說話는 건국신화에 흔히 등장한다. 이는 '하늘의 아들'임을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데, 신라의 박혁거세朴赫居世나 김알지金閼智등과 관련한 설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수릉은 수로왕이 죽은 뒤에 붙여진 묘호廟號로 김해시 한복판의 서상동에 위치한다. 김해에서 수릉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시내곳곳에 설치된 표지판을 따라가면 된다.

수릉 앞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내문이 보인다.

서기 42년 구지봉에서 탄강하여 가락국[駕洛國, 金官伽倻]을 세운 수로왕의 묘역으로서 납릉納陵이라고도 불린다.

그 규모는 지름 22m, 높이 6m의 원형 봉토분으로 능비, 상석, 문무인석, 마양호석馬羊虎石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경내에는 송선전崇善殿과 송안전崇安殿, 안향각安香閣, 신도비각神道碑閣등이 배치되어 있다.

납릉 정문에는 파사석과 유사한 흰 석탑을 사이에 두고 인도에서 흔히 보이는 쌍어 모양이 새겨져 있어 수로왕비 허황옥이 아유타국에서 왔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연상케 한다.

삼국유사의 가락국기는 199년 수로왕이 159세로 돌아가자 대궐의 동북쪽 평지에 빈궁殯宮(을 짓고 장사 지낸 뒤, 주위 300보를 수로왕묘首露王廟로 정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현재의 수로왕릉이 평지에 있는 것과 능역이 설정되었던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조선 선조 13년(1580) 영남 관찰사 허엽이 왕릉을 크게 수축하여 상석, 석단, 능묘 등을 갖추었고 인조 25년(1647) 능비를 세웠으며, 고종 15년(1878)에는 송선전의 호를 내리고 능묘를 개축하여 지금의모습을 갖추었다.

수로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송선전에는 춘추春秋로 제향을 올리고 있는데, 이 송선제례는 경남 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어 있다.

안내문에 나오는 파사석탑과 쌍어 문양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설명하도록 한다. 수릉의 수축과 개축에 관한 여러 언급에서 미루어지듯이, 지금의 수릉묘역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조선의 왕릉과 매우 흡사해졌다. 당시에는 지금과 많이 다른 조출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미루어질 따름이다. 그래도 본래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나마 위안이 된다.



김해 수로왕릉 | 입구에 세워진 건물과 홍살문은 조선왕조의 산물이다.

수릉은 한없이 쓸쓸하고 한없이 포근한 무덤이다. 역사와 신화속의 주인공이 이승의 시간을 들쑤시며 지나간 자취가 이렇게 둥두렷이 남았다. 추녀 아래에 보이는 낫달처럼 창망하다.

주지하듯이, 남아 있는 문자적인 기록을 밝은 태양으로 삼는 자세가 역사 연구의 방법이다. 역사의 추적 과정에서 십중팔구 소외되기 마련인 신화와 전설은 저 한낮에 나온 낫달과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태양이 존재하기에 저 달이 빛을 발하듯, 역사가 존재하기에 신화와 전설도 입에서 입으로 끊임없이 전해지는 것이리라. 밝은 태양의 눈부심이 있기에 저 달의 포근함이 존재하고, 역사의 엄정함이 있기에 신화와 전설에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배었으리라.

수로왕이 신격화된 데에는 그의 왕비 허황옥許黃玉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허황옥의 묘는 인근의 '구지봉龜旨峰' 아래에 남았다.

다음 회는 <무척산 모은암> 세 번째 이야기 “수로왕비릉과 파사석탑”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